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KIA TIGERS 끝없는 추락

(중) 흔들리는 '지휘부'

올 시즌 최악의 성적을 내고 있는 KIA호가 시즌 초반부터 흘러나온 감독과 코칭스태프의 불확실, 단장의 선수단 간섭 등 각종 내분에 흔들리고 있다. 프로야구에서 감독은 '사령탑', '선장' 등으로 불리며 선수단 운영에 전권을 갖고 있는 절대적 존재다. 하지만 감독이 경기외적인 압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자신의 색깔도 내지 못하고, 조직을 장악하지도 못하면서 결국 팀을 끝까지 수렁으로 밀어 넣었다.

감독-코치·프런트 불화... 단장, 지나친 간섭 '모래알 팀' 예견된 꿀씨

육성군 코치 영입도 불화 원인

올 시즌 초 서정환 감독의 리더십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일부 코치들이 감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표면적인 불만은 경기 후 감독이 특정 코치들하고만 어울리는 등 편애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태생적인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서 감독은 부임 초 일부 코치들을 직접 지목해서 선임했다. 그런데 서 감독과 자주 어울리는 이들이 주로 이러한 인물들이었다. 다른 코치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듯한 박탈감을 느끼게 됐고, 이러한 조그마한 감정이 쌓이고 쌓여 감독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났다.

서 감독은 이에 대해 "술을 못먹는 코치들을 배려해 안 부른 것인데, 앞으로 일과 후에도 모두 동참시켜야겠다"면서도 인정을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러한 코치진들의 갈등은 결국 선수단에게 보이지 않는 심리적 불안으로 이어졌고 1, 2군 코치가 뒤바뀐 현재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다.

KIA는 또 올 3월 한국프로야구 최초로 3군 성격의 육성군을 만들었다.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신선히다는 반응도 있었으나, 뒤로 오해만 불러일으켰다. 육성군 코치로 영입한 장재근 코치 때문이었다.

장 코치는 정재공 KIA 단장과 절친한 선구관대 선·후배 사이였는데, 과거 서정환 감독과 감독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였던 인물이라는 게 문제였다.

장 코치가 불과 1년여만에 다시 KIA호에 승선하면서 '차기 감독설'이 떠도는 등 한동안 팀이 술렁거리기도 했다.

다. 감독, 선수단, 프런트 등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도 부족할 판에 시즌초부터 이래저래 팀 분위기가 뒤숭숭해졌다.

애초 원인을 제공한 정 단장도 문제지만 2년여가 가도록 선수단을 장악하지 못한 서 감독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대목이다.

프런트까지 감독에 항변

2006시즌 초 용병타자 서브넵을 놓고 감독과 스카우트 팀원이 설전을 벌인 적이 있었다.

서 감독은 "서브넵의 실력이 형편 없다"며 교체를 요구했고, 스카우트팀은 "코치진이 타격폼을 망쳐왔다. 좀 더

졌느냐"고 안타까워 했다. 감독의 지휘권 위에 단장이라는 강력한 힘이 존재하는 '옥상옥(屋上屋)'의 현상이 빚어낸 사례라는 게 KIA 관계자들의 얘기다.

단장 과욕이 부른 갈등

정 단장은 한때 코칭스태프에게 미국 메이저리그 팀인 '미네소타 방식'으로 과제물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미네소타 방식이란 간략히 말하면 경기 후 매일 각자 맡은 포지션의 경기 내용을 분석해서 제출하는 것이다.

'공부하는 코치진이 되라는' 것으로 그 취지는 괜찮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 코치진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A 코치는 "좋은 방식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코치들에게 그날 경기 결과를 분석하라고 해 새벽까지 잠도 못자고 다음날 경기 구상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소연을 했다.

또 "단장에게 폐지해 줄 것을 건의 해달라"고 까지 했다.

미네소타 방식으로 공부했던 코치진은 결국 올 시즌 '꿀씨'라는 성적표만 받아들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농구팀 단장 출신인 정 단장이 실전 야구도 잘 모르면서 선진시스템만 무리하게 도입,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지나친 간섭만 한채 성과도 올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자초하고 말았다.

이처럼 수뇌부 불화와 갈등은 '야구명가' 호랑이 군단이 창단 이래 최악의 성적을 내고 있는 근본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US여자오픈골프 내일 개막... 지켜볼 선수



위성미가 26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피인니들스골프장에서 열린 US 여자오픈골프 연습라운드 9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신지애, 마침내 일 낼까 위성미, 명예회복 할까

28일(한국시간) 오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서던파인스의 피인니들스골프장(파71·6천616야드)에서 개막될 여자프로골프 세계 최고 권위의 대회 US여자오픈은 '한국 선수들의 잔치'가 될 전망이다. 여자자프로골프대회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가장 많은 상금을 내걸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세번째 메이저대회로 치러질 이 대회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 또는 한국계는 무려 45명에 이른다.

전체 출전 선수 156명의 28%를 차지해 세 명 가운데 한 명 꼴이다. US여자오픈은 골프 선수라면 누구나 출전을 꿈꾸는 최고 대회이기 때문에 본선 무대를 밟은 것 자체가 선수에게는 영광이다.

본선 출전권을 받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 미국골프협회(USGA)가 정한 자격을 갖춘 선수들은 자동 출전권을 받는다. 대체로 LPGA 투어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정상급 선수들이다. 이와 함께 한국과 일본, 유럽 등 해외 투어 상급랭킹 상위 선수들이 USGA의 초청장을 받아 본선 무대에 섰다.

다음은 US여자오픈 관련 포인트.

김미현 '메이저 무관' 한풀이 성공하나

▲관목과 이름값 하나 = LPGA투어에서 메이저대회를 제패한 선수는 박세리, 박지은(28·나이키골프), 장정(27·기업은행), 김주연 등 네 명.

큰 대회 우승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다. 때문에 이들 네 명은 우승 후보에서 빼놓을 수가 없다. 이미 이 대회 우승을 포함해 메이저대회 5승을 올린 박세리는 명예의 전당 입회를 확정짓고 흥겨운 마음으로 '새출발'을 선언, 이번 대회에서 확실한 '메이저러'로 자리잡겠다는 각오다.

시즌 초반에 부진했던 장정은 25일 끝난 웨그먼스LPGA에서 공동 5위에 오르면서 감각을 끌어 올렸다. 김주연과 박지은은 긴 슬럼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지만 큰 대회에 강한 면모가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다섯 번째 '메이저러'로 가장 유력한 후보는 '슈퍼땅콩' 김미현(30·KTF)이다.

올해도 한차례 우승과 다섯 차례 '톱 10' 진입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김미현은 정확한 샷과 관목이 승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이는 이번 대회에서 '메이저 무관'의 한풀이에 나선다.

어느덧 고참 선수 대열에 합류한 이정은(28)과 김영(27)도 경험에서는 뒤지지 않는다.

▲신지애 주목 = 시즌 첫 메이저대회 우승컵은 스무살도 채 안된 프레셀이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신예들의 반란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신예들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선수들은 프레셀과 동갑인 1988년생 '코리안'들이다. 특히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서 무적의 지존으로 군림하고 있는 신지애(19·하이마트)를 주목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미 국내 무대에서는 전성기 때 박세리와 김미현의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신지애는 지난 4월 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 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 13위를 차지해 미국에서도 통한다는 찬사를 받았다.

장타력과 정확성, 그리고 승부 근성까지 두루 갖춘 신지애는 '88년생' 가운데 '신예 반란'을 일으킬 잠재력이 가장 큰 선수로 꼽힌다.

시즌 두번째 메이저대회 맥도널드LPGA 챔피언십이 배출한 깜짝 스타 민나운(19)과 웨그먼스LPGA에서 아깝게 우승을 놓친 김인경(19)도 신지애와 함께 주목받는 '88년생'이다.

이와 함께 안젤라 박(19), 김승희(19.힐라코리아), 오지영(19) 등도 1988년이다.

박세리·장정 등 한국선수 45명 순위는?

▲위성미, 명예 회복할까 = 한때 'LPGA의 미래'로 칭송받았지만 어느새 '미운 오리'로 전락한 위성미(18·미국 이름 미셸 위)는 이번 대회에서도 단연 화제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긴트리뷰트대회에서 고의 기권 의혹에 휩싸이던 이어 맥도널드LPGA 챔피언십에서 꼴찌에 그치는 등 하한가를 거듭한 위성미는 이번에도 형편없는 경기력을 보인다면 LPGA 투어에서도 설 자리를 잃는다.

그동안 쏟아지는 비난에도 당당했던 위성미가 이번 대회에서 명예를 회복할 공산은 크지 않다. 손목 부상 여파로 장기간 드라이버가 크게 흔들린 모습을 보인 위성미가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채 나서는 이 대회에서 예전의 장타를 평평 패러벌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예정됐던 PGA 투어 존디어레이크 출전을 포기한 것도 손목 부상 후유증이 말끔하게 없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고 보면 위성미는 또 한차례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지난 20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벌어진 프로야구 KIA-한화 경기에서 KIA가 한화에 크게 뒤지자 덕아웃에 있던 KIA 코치들이 굳은 얼굴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류제국 시즌 2승

美프로야구 마이너리그

미국프로야구 탬파베이 데블레이스 산하 마이너리그 팀에서 뛰고 있는 우안 투수 류제국(24)이 시즌 2승째를 올렸다.

트리플A 더햄 볼스 소속인 류제국은 26일(한국시간) 버지니아 주 리치먼드 더 다이아몬드 구장에서 벌어진 리치먼드 브레이브스(에블랜타 산하)전에 선발 등판, 5.2이닝

동안 안타 5개를 맞고 4점을 내줬지만 타선의 지원 덕분에 2승(1패)째를 수확했다.

16일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언스(피츠버그 산하)전에 5이닝 동안 1점만 주는 호투로 첫 승리를 낚은 뒤 열흘 만이다.

류제국은 이날 7·0으로 크게 앞선 3회 2사 후 중월 3루타를 맞고 1점을 줬다. 계속된 2사 3루에서 마틴 프라도에게 우전 적시타를 맞아 2점째를 실점했다. 7·2이던 6회에는 1점을 더 준 뒤 1사 2루에서 그레임 쿤스에게 다시 안타를 맞고 4점째를 헌납했다.

더햄은 리치먼드를 8·5로 이겼다.

KPGA 연우혜브랜드오픈

내일 경북 성주에서 개막

한국프로골프(KPGA) SBS 코리아 투어의 시즌 일곱번째 대회 연우혜브랜드오픈이 28일부터 나흘간 경북 성주군 해본랜드골프장(파72·7천220야드)에서 펼쳐진다.

앞서 열린 여섯차례 대회에서 5명의 20대 선수가 우승컵을 가져간 만큼 올 시즌 유난히도 '영건'들의 기세가 드높다.

연우혜브랜드오픈에서도 우승 후보는 김경태(21·신한은행)를 비롯해 홍순상(26·SK텔레콤), 배상문(21·캘러웨이), 강경남(24·삼화저축은행) 등의 젊은 선수로 압축된다.

특히 이번 코스는 페어웨이가 좁은데다 그린의 언플레이션이 심해 한번의 실수가 우승자를 바꿀 수 있는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피말리는 승부가 예상된다.

관련 이번 대회는 SBS골프채널이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오후 2시부터 생중계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